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개막

4일까지 의암공원 일원서 불꽃놀이로 분위기 돋워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2일 오후 7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오른다.

2일 개막식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인근의 자치단체장, 자매시군 기관단체장, 향우회 임원, 도시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축하해줄 예정이다.

특히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를 슬로건으로 공연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막식에 앞서 오전엔 메인무대와 이벤트 무대에선 토마토 달인을 찾아라, 판토마임 페스티벌, 태권도 시연, 버스킹 공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발표회 등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오후 1시엔 장수종합운동장에선 KBS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진행된다.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2일부터 4일까지 장수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축제기간 내내 적과의 동침, 장수한우마당, 전국한우곤포나르기대회, 장수한우?장수사과품평회, Red 및 우수농산물 상품전 등 전시판매장이 상시 운영되고 제8회 논개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제34회 전라북도 남녀궁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제1회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승마대회 등이 열린다.

또한 사과수확체험과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오감만족 오미자체험, 동물농장 체험, 승마체험, 수상자전거체험, 추억의 놀이터, 비눗방울체험, 앵그리사과체험 등 풍성한 농촌체험프로그램과 뮤지컬 공연, 레드락 페스티벌, 버스킹공연, 주현미 K-콘서트 등 문화공연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득 군수는 "올해 장수군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농축산물도 맛보고 장수 농부의 정성과 건강이 담긴 뜻 깊은 추석 선물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금강 물고기 만나러 가자'

쏘가리 · 물방개 등 60여 종 무주반딧불축제 곤충관 인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곤충을 주제로 한 전시관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1층에 마련된 금강 민물고기 & 수서곤충관에는 금강에 서식하는 60여 종의 어류(쏘가리 등)와 조개류(펄조개 등), 갑각류(징거미새우 등), 수서 곤충(물방개 등)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뜰채를 이용해 물고기를 직접 잡아볼 수 있는 체험 장소가 건물 밖에 별로로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지금까지 4천 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가셨다"며 "무주 지역 금강에 서식하는 수서 곤충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기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잡아보는 즐거움까지 있어 어린이들이 있는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예체문화관 1층 대공연장에 마련된 곤충생태 전시 체험관도 아이들과 꼭 한 번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 무주반딧불축제 지원단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1만여 명이 관람을 했다.

곤충생태 학습관과 희귀곤충 표본관, 장수풍뎅이 체험관, 나비 / 메뚜기 체험관, 산업곤충관, 곤충카페 등을 구성된 이곳은 낮에도 반딧불을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주제관과 연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장수풍뎅이를 비롯한 사슴벌레와 뒤영벌 등 살아있는 곤충들을 만지고 물방개 낚시도 해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금강 민물고기 & 수서 곤충관(무료)과 곤충생태 체험전시관(반딧불이 주제관과 연계해 인 당 3천 원)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뉴스

장수군,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추진상황 실적보고회 가져

장수군은 1일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실무담당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16년실적)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실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9개 분야 136개 정량지표에 대한 지표별 추진실적을 진단하고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부군수 주재로 월별 실적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성과관리(BSC)가점 및 글로벌 시책연수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표별 부서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署, 범죄예방 홍보활동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수사과(경감 홍현수)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되는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불량식품시민감시단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근절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전화금융사기예방법과 불량식품근절 신고전화가 담긴 부채와 전단지를 나눠주며 범죄예방 홍보에 주력했다. 아울러, 행사장 내 설치한 경찰부스에서는 안전한 무주를 홍보기 위해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홍현수 수사과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재수용품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점검 및 단속과, 노인대상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서 산서파출소 이강필 경위 승진임용식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산서파출소장, 동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서파출소 이강필 경위의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진임용식은 임용장 전달과 계급장 부착 순으로 동료직원들의 축하 속에서 진행됐다. 승진 임용된 이강필 경위는"서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동료 직원들의 축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계급 올라간 만큼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부남면민의 날 '성황'

무주군 부남면민의 날 행사(주최 부남면 / 주관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가 1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면민들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출향면민들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보물찾기, 전통놀이(콩 주머니 넣기, 투호, 윷놀이), 면민 노래자랑 등이 개최돼 호응을 얻었으며 기념식에서는 유상돈 씨(47세, 대소길), 황덕연 씨(70세, 유섬길), 임정숙 씨(59세, 상굴암길)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은종대 씨(72세, 대홍로)와 김철수 씨(57세, 대티안길)는 면민의 장을 수상했다. 유상정 씨(45세, 고창길)과 유경섭 씨(38세, 대소 2길)는 지역발전협의회장상을 받았다.

황 군수는 "뜨거웠던 여름 금강이 아름다운 부남, 래프팅의 고장 부남면 덕분에 무주는 다시 한 번 관광군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모아진 화합의 기운이 행복한 부남을 만들고 부자되는 무주를 키우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 선정

소양 황운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80호 건설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완주군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80호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건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말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주택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완주군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공모했다.

특히 주택제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민선6기 박성일 군수의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공모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업 가운데 하나다.

소양면은 과거 군에서 3번째로 면세가 컸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서부권과 북부권의 주거여건이 개선된 반면 군의 동부권인 소양면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38.3%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양면 소재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한 마을정비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소양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수에 취임하면서 부터 동부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근린공원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완주군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서

'국무총리상 · 장관상' 휩쓸어

마을소득체험분야 · 시군분야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 · 장관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마을소득체험분야'에서 완주군 구이면 안덕마을이 국무총리상을, 시군분야 중 완주군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완주군은 한국 농업 · 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년간 치열한 노력을 담담히 소개해 소비자단체 및 파워블로거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 완주군은 마을회사, 로컬푸드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아파트 및 지역창업공동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0.5ha미만의 3천여 소농을 조직화하여 농민가공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생산농민이 가지도록 하는 로컬푸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 부분과 마을 · 아파트 공동체 및 지역창업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해 행정의 주역을 공무원에서 주민으로 민관협치의 적극적인 사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마을 및 아파트 도시공동체 등 각 공동체들이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는 완주군의 모습을 보여줘 콘테스트에 참여한 전국 30여개 마을만들기 관계자 등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완주=이중복기자

진안 농 · 특산물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 대상

홍보 마케팅 전략 구축 성과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진안 농 · 특산물 공동브랜드사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大賞'에서 진안군 농 · 특산물 공동브랜드 '마이산 정기담은'이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大賞'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최,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전국 지자체 및 단체, 각 기업,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제출된 단체의 공적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한국경제신문이 보유한 많은 패널을 통해 2016년 6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소비자 사전 기초조사, 본 조사, 심사를 실시했다.

조사통계의 객관적인 결과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총 37개의 기업브랜드와 공동브랜드가 선정되었다. 이 중 농 · 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가 대상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진안군은 2010년 농 · 특산물의 대표 공동브랜드 '마이산 정기담은'을 개발하여 지난 6년 동안 청정 자연환경의 우수 농 ·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및 주요 대도시의 광고 홍보 및 영상 홍보 마케팅 구축, 홍보 책자 제작 등 많은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며 전국 최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이라는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처음 소비자가 신뢰하는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일과 2일 상임위원회, 5일과 6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배성기)에서는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기)에서는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 · 관리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한다.

또한, 제232회 임시회는 지역 현안과 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밀도 높은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 이틀에 나누어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지 외 12개소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갑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박명석 의장은 "연초 계획되었던 당초계획과 현시점에서의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한 사항은 원인 분석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오는 2017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자봉센터, 추석맞이 연탄나눔 대축제 펼쳐

100세대에 300장씩 전달

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용진)는 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연탄나눔 대축제'를 펼쳤다.

이번 '사랑나눔! 연탄나눔 대축제'는 기관, 업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후원금과 전주 연탄은행의 후원으로 3만장의 연탄을 저소득 가구 100세대에게 300장씩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종교단체 및 자원봉사자, 진안중학교 학생 등 200여명의 봉사자와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300여명 등 500여명이 참여한 대단위의 나눔 행사였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추석맞이 고추, 과일 수확 등 생업도 뒤로하고 연탄축제에 참여해 한장 한장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원봉사로 행복한 희망진안 만들기'를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김용진 센터장은 "우리지역의 기업,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학생 등 자원봉사자와 의미 있는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함이 두배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